

##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세 가지 제언

재활용단체 및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평소의 느낀 바를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폐기물을 쓰레기로만 보면 쓰레기로 처분되어지지만 자원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버려지는 많은 쓰레기가 자원으로 되살아납니다.

아시다시피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귀중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첫째, 재활용행정을 맡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 관련 부서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서 다들 가지 않으려 하고 또한 재직자는 빨리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 업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적과 문제만 부각되어지기 때문에 앞서 나가려 하지 않고 그저 전임자가 하던대로 하면서 안주하는 것이 오히려 무난하게 하고 있다는 평을 듣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재활용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선호하는 부서로의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함은 물론 재활용관련 부서에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행정부처 상호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더불어 자원재활용은 꼭 해야 한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으나 구호와 인식보다는 실천입니다. 자원재활용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인프라 구축과 재활용의 기반인 수집과 보관을 위한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만 수도권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수집을 위한 재활용단지는 송파구 외에는 없는 상태이며, 경기도 일원에서는 단지가 없어 재활용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법은 있으나 재활용을 위한 수집, 보관 장소는 안 된다는 것은 부처간에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정부에서는 재활용단지 조성을 하여 재활용축진이 활성화되게 여건조성을 해주던가 민간 단체에서도 단지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시켜 부지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하루 속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합니다.

셋째, 시민의식도 향상되어야 합니다.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은 실천입니다. 권리만 주장 말고 의무도 잘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재활용 상품을 우선구매하고 있는가, 분리배출 등 폐자원이 재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협조하고 있나, 우리 아이들에게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본모기를 보여주고 있는가 등등 시민차원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이 절약하고 환경오염부하도 감소시키는 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김기홍  
한국자원재생활용협회 부회장